

공동체 소식

■ **사순시기 및 재의 수요일 안내:** 3월 6일(수) 재의 수요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금육과 한끼 단식이 있습니다. 금육과 단식 규정은 성당 입구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고행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듯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성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례 중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습니다.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자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고해성사를 보지 못해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사순시기에 고해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활동판공성사는 3월 31일(일) 미사 전 10시30분~10시55분까지 있습니다.(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설명은 주보와 함께 배포된 교구장 주교님 편지를 참조해 주십시오.(영문/한글번역본)

■ **“Enflame Our Hearts” Convocation 2019 안내:** 교구 대회 참가자들은 교구에서 발송한 메일 참조하시어 본당 사전 모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등록 / 교리시작 안내:** 3월 3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시작합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매일미사에 나오는 주일 영어독서와 영어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매일미사책 준비 바랍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바랍니다(캔사스 대교구 주관)

■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시작안내:** 10일(일) 오전 10시-10시 30분 성당 지하 식당에서 교리반 시작합니다.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환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24가정)

■ **구역모임 안내. (게시판 참조)**
구역내 모든 가정을 한차례씩 돌며 구역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 모임 시간 확인해 주십시오.

■ **1구역 구역모임**
3월 9일(토) 저녁 7시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가정 (12811 W. 106th St, Overland Park)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34	211	156	401
차 주	115	212	180	123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안젤라)	김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차 주	김대연(요셉)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한나) 김지안(요한)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티노), 김동술(요한)
차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차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지하 청소합니다 많은 협조주탁드립니다

■ **마지막 입시설명회:**
3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전례부 회합:**
1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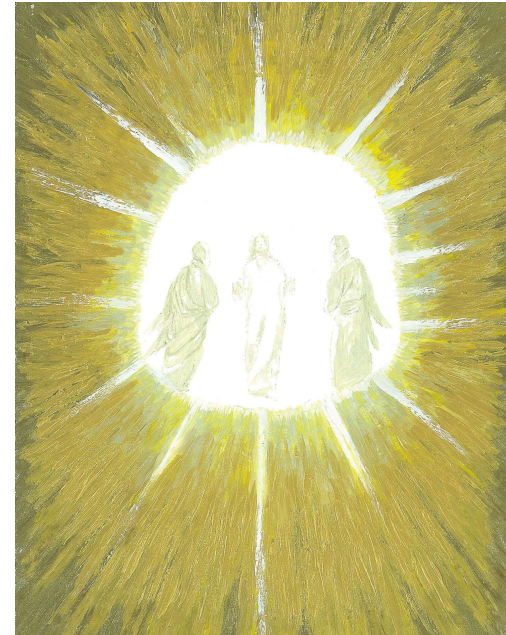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8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지혜의 샘이며 삶의 규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귀를 열어 주시어, 교만하여 형제들을 그릇 판단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그림 묵상**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에 앞서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는, 더욱 큰 영적 갈망의 기쁨을 간직하며 사순 시기를 지내라는 초대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 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27,4-7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곤 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54-58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9-45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생명의 말씀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오늘 복음 대목은 루카 복음서의 '평지설교'의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오 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해 보면, 마태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참된 행복을 포함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긴 담화문(마태 5-7장)인데 비해, 루카 복음에서는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가르침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가르침, 이렇게 크게 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 중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기에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대목을 굳이 연결해 보자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는 오늘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서 제1독서에서는 집회서의 한 구절을 들려줍니다. “체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집회서의 말씀은 단지 입조심, 말조심하라는 입단속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마음을 닦아야 함을 말해 줍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종종 선과 악이 충돌하기도 하고, 이기심과 박애의 마음이 갈등을 빚기도 하고, 좋은 의지가 게으름과 용기 없음에 눌러 씨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제2독서에서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

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여기에 단초를 줍니다. 선과 악이 부딪히고, 이기심과 박애로 영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선한 곳간'으로 바꾸는 작업은 단순히 '굳은 결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가능함을 말해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덧입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 해답을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도 '선한 것을 내놓는 선한 곳간'으로 변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여러분은 거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비추는 것이
우리 거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얼굴을 닦아
깨끗하고 티 없이 비추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사명이라면
우리에게는 진실함이 사명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루카 6,4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구하라 얻을 것이다

저는 군종교구 공군중앙성당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저는 전역을 한 후에도 군종성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군종성당은 일반적인 지역에 있는 성당과 달리 군인과 가족을 위한 성당이다 보니 전체 신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성가대로 활동할 수 있는 수도 적습니다. 저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광주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 성당에는 단체로 미사에 참례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들도 있었지만, 동료들을 따라 성당에 온 비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좀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합창에 필요한 소리도 잘 못 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노엘미사곡을 연습했고 시간이 흐르며 성가대 다운 화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준비한 성가는 모든 신자가 뒤를 돌아볼 정도로 아름답게 성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친구 따라 성당에 온 병사들도 신자가 되길 약속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 수가 적은 성당에서는 성가대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성가대를 지휘해야 하고 반주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원하는 부분을 채워줍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꼭 성가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주자가 없으면 누군가 기타를 연주하며 같이 성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을 채워 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성가를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같이 참여하는 자세와 주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가는 주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가는 일반적인 기도보다 두 배의 정성이 들어가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성가를 통해 주님께 찬미를 올리는 성가대에 힘을 주는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은총의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백윤형 알베르토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기도묵상

기도란 친구와의 대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자주, 그리고 기꺼이 혼자서 그를 만납니다.

- 예수의 성녀 데레사 -